

## 100여일 앞 지방선거, 무공천·경선룰 제자리 민주당 우왕좌왕 입지자 혼란가중

‘공천불가피’ 현실론 우세속  
손학규·박원순 무공천 주장  
혁신모임 개방형 경선 제안

6·4 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민주당이 예초 당론으로 정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정당공천 폐지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당내에서는 민주당도 공천을 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민주당만이라도 약속을 지켜 공천하지 말자는 명분론도 속속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당 안팎에서 공천 불가피론을 주장하는 인사들은 “‘무(無)공천’을 하면 출마자들이 대거 탈락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예비후보자들 의견이 3대1 내지 4대1 정도로 공천 불가파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면서 “공천을 하지 않으면 자칫 지방선거 패배로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공천을 받지 못하더라도 후보자가 탈락하지 않고 출마할 수 있도록 현행 선거법을 개정해 무공천을 관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손학규 상임고문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기어코 약속을 파기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제도를 고수한다면 민주당만이라도 공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11일 당 대선회에 참석해 명분론을 강조하며 ‘무공천론’을 주장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한길 대표도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 민주당은 예초 지난 주 정당공천 폐지문제에 대한 최종인장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이 때문에 미뤄졌다. 하지만 정작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들은 속이 타 들어가고 있다. 공천제 폐지 여부에 따라 선거를 조정해 출마 여부를 결정하려는 일부 예정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내 강기정·최재성·오영식 의원 등이 주도하는 ‘혁신모임’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 전면 도입 등을 제안해, 당이 이를 대안으로 받아들일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새누리당의 반대로 관철되지 않는다면, 대신 당의 공천권을 모두 시민들에게 넘겨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공천폐지 입법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민주당이 공천권을 행사한다면 새누리당의 대국민 약속 위반에 동조하는 셈이 된다”며 “그렇다고 탈당을 시켜가며 무공천을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기초공천 폐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당이 공천권을 내려놓으라는 뜻”이라며 “시민들에게 공천권을 넘긴다면 소임을 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당에 18일까지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한 여당과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폐지에 합의되지 않으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삼아 다시 여야협약에 착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는 “정당공천제 폐지는 결단의 문제”라며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고, 당론으로까지 정해졌는데 상황이 달라졌다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행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필기기자 cki@



‘주리안’의 화사한 봄맞이  
추위가 한풀 꺾인 16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꽃을 피우리’ 농원에서 직원들이 화사하게 피어난 ‘주리안’을 화분에 담으며 꽃 출하를 준비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安신당 당명 ‘새정치연합’ 재정 마비 지자체 파산제 하반기 도입

오늘 창당 발기인 대회 공식 출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16일 신당 명칭을 ‘새정치연합’(New Political Party)으로 확정하고,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통합 정당을 표방해 나가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새정추는 또 17일 오후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들어간다. 새정추 급태섭 대변인은 16일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국민 공모절차를 거쳐 당명을 ‘새정치연합’으로 정했다”면서 “내일 발기인대회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추는 지난 7일부터 일주일 간 국민 공모를 통해 모두 5100여건의 당명을 접수, 추진위원회 창당위원회를 포함한 실무단의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10여개의 예비후보를 선정한 뒤 공동위원장이 다시 5개로 압축해 논의를 벌였다.

새정추는 또 ‘새정치연합’ 창당 발

기취지문을 통해 “새정치연합”은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모든 국민의 통합 정당”이라며 “한국정치의 틀을 새롭게 바꾸는 중심정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추는 17일 320여 명의 창당 발기인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신당 창당 취지를 밝히고 당헌·당규 성격의 창당위 규약을 채택하며 법적 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미 발표한 110명의 창당발기인 이외에 이날 모습을 드러낸 21명의 나머지 발기인의 면면이 주목된다.

새정추는 이미 내부협의를 거쳐 안 의원을 중앙운영위원장으로 선임키로 결정했으며, 이날 최종 추진절차를 밟게 된다. 창준위 공동위원장도 현재 새정추 공동위원장이 그대로 맡을 예정이다. 새정추는 17일 또는 18일 중앙선관위에 창준위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창준위 등록을 마치면 당원 모집과 시·도당 창당 등 사실상 정당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행부 업무보고...주민등록번호 제도 전면개편 검토

재정 기능이 마비된 지방자치단체에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가 올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대적인 유출로 국민의 불신을 받은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전면개편을 포함해 모든 대체수단이 검토된다. <관련기사 2면>

안행정부는 지난 14일 청와대에 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안행부는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지자체 파산제 도입방안을 만들고 하반기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 파산제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정부나 상급단체가 개입해 재정회생을 추진하는 제도다. 회생 가치가 있는 기업을 구조조정을 통해 살려내는 워크아웃제도와 유사하다.

하지만 지자체 파산제도가 자치권을 침해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반대여론도 거세다. 정부는 1995년 민선 1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파산제도를 추진했다가 반

대여론에 밀려 철회했다. 안행부는 또 내년부터 지자체별 풍수해·화재·교통사고·범죄·추락·익사·자살·감염병 등 사망자수를 토대로 지역안전지수를 산출해 5개 등급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불안감 해소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

려 전면개편을 포함해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아이핀,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등 대체수단을 검토한다.

안행부는 14세 이하 어린이 10만명 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 2012년 4.3명에서 올해 3명대로 낮추고 2017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인 2명대로 줄일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장부장판사**를 끝으로 정년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배풀어 주신 후회에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주요약력 -

- 광주 광덕고(38회) 전남대 법학과(86학번) 졸업
-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6기 수료
-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법 북부지원 의정부지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
- 미국 루이스앤클라크대학 국외연수
- 광주지방법원 영성지원판사
- 광주고등·지방법원 공보관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장
- 정통, 장흥, 무안군 선거관리위원장

### 변호사 문 방 진 올림

■ 업무개시 : 2014. 3. 14 (금) ■ 업무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 중법로 31, 3·4층(법원후문 버스정류장 옆)  
■ 대표전화 : 062) 229-1111, 236-4000 ■ 팩스 062) 229-1122 ■ 개업연도 2014. 3. 14 (금) 12:00부터

## The New E 300 4 MATIC Avantgarde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New E-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1(번지)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200 1.991cc, 1.63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0km/ℓ(도시연비 10.5km/ℓ, 고속도로연비 14.6km/ℓ), 3등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45g/km  
E 220 CDI 2.143cc, 1.780kg, 자동7단, 복합연비 16.3km/ℓ(도시연비 14.2km/ℓ, 고속도로연비 19.8km/ℓ), 1등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20g/km  
E 250 CDI 4MATIC 2.143cc, 1.843kg, 자동7단, 복합연비 14.2km/ℓ(도시연비 12.8km/ℓ, 고속도로연비 16.4km/ℓ), 2등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39g/km  
E 300 3.498cc, 1.735kg, 자동7단, 복합연비 10.3km/ℓ(도시연비 8.9km/ℓ, 고속도로연비 12.7km/ℓ), 4등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72g/km  
E 300 4MATIC 3.498cc, 1.830kg, 자동7단, 복합연비 9.9km/ℓ(도시연비 7.9km/ℓ, 고속도로연비 10.9km/ℓ), 5등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97g/km  
E 350 4MATIC 3.498cc, 1.803kg, 자동7단, 복합연비 9.2km/ℓ(도시연비 8.2km/ℓ, 고속도로연비 11.1km/ℓ), 5등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92g/km  
※ 연비는 표준조건에 의한 인공시험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